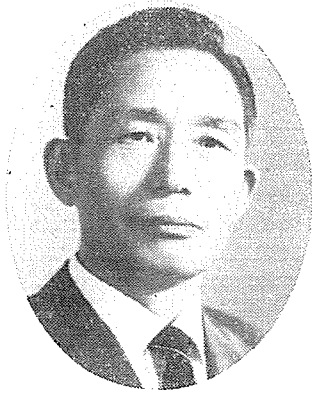


朴大統領 새해 施政연설

〈經濟 科學技術分野 요지〉

國家安保 태세 강화

主要經濟開發事業 積極 支援



朴正熙 대통령

朴正熙대통령은 10月 4日 77年度 豫算案을 國會에 提出하고 새해 施政 基本方向과 所信의 一端을 披瀝하였다.

朴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그간에 이룩해 놓은 劃期的인 國力の 伸張과 튼튼한 自立基盤위에서 또다시 巨步前進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朴대통령은 2조 6천 7백 50억원 규모의 77년도 豫算案編成은 一般行政, 國防, 社會開發및 經濟開發等 各 부문간에 均衡을 기하면서도 重點事業을 效果的으로 推進할수 있도록 한것이라고 強調하고 이 豫算案의 첫째가, 國家安保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것, 둘째는 主要經濟開發事業을 積極支援하고 社會開發의 촉진을 뒷받침한것, 셋째, 國民生活의 安定과 福祉向上에 力點을 두고, 財政을 効率的으로 運營하기 爲하여, 豫算制度和 稅制를 改善한 것이라고 했다.

◎ 輸入適正화로

國際收支 改善에 노력

「輸出의 증대와 輸入의 적정화를 통하여 國際收支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輸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工業基盤과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產化를 積極 추진하여 輸入代替를 강력히 뒷받침 함으로서 輸入수요를 안정시켜 나갈 것이다.

◎ 重化學工業에 力點

輸出基盤 擴充

重化學工業을 계속 확충하여 工業구조의 高度化를 실현하고 우선 鐵鋼부문에서 지난 5월말 完工을 본 粗鋼能力 260萬톤 규모의 포항제철 제2기 설비에 이어 현재 건설중인 550만톤 규모의 제3기설비 확장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79년에 완공토록 추진해 다간다.

科學技術교육擴充 人力양성

〈經濟開發費 5,597 억원〉

社會開發의 촉진을 뒷받침

國民生活의 安定 福祉向上에 力點

◎ 機械工業 育成 기반 구축

大企業型 機械工場 육성과 병행하여 中小企業 部品專門공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 示範공장을 선정 하겠으며 우선 내년도에 100개 공장을 지정 金融 稅制面에서 적극지원해 나가겠다. 또한 금년부터 강력히 추진중에 있는 機械類 國產化시책은 더욱 实效性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 電子工業 형태 轉換

電子工業 部門에 있어서는 組立型態를 탈피하여 素材및 部品生産으로 전환하고 高度의 技術開發을 通하여 勞動集約工業에서 技術集約工業으로 발전시켜 國際競爭力을 強化하는데 力點을 두겠다.

◎ 科學技術 開發과 振興策

정부는 그동안 經濟發展과 國際競爭의 原動力이 되는 科學技術開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技術開發의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 韓國科學技術研究所, 韓國科學院, 原子力研究所 資源研究所 等은 研究開發活動에 중추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産業의 高度化에 대비하여 先進技術을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國產化 促進을 위한 研究開發에 주력할 것이며 企業의 技術開發活動을 장려하여 고도의 산업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

◎ 科學技術人力 양성에 拍車

科學技術 人력양성의 質的 向上과 制度的 支援을 爲한 國家技術 資格 制度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해 技術檢定公團을 設立 운영 하겠다.

◎ 科學技術 教育

教育의 目標은 國家가 지향하는 방향과 시책에 符合되고 空理空論보다는 실질을 중상하며 말보다는 실천을 重히 여기는 生産的이고 建設的인 참다운 韓國人을 길러 내는데 있다.

義務教育을 더욱 內實化하고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重化學工業 建設과 産業의 高度化에 발맞추어 科學技術教育을 擴充함으로써 有能한 技術人力을 養成해 나가겠다. 이제 제도에 오르기 시작한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을 더욱 확충하고 特히 工科大學의 특성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產學協同 體制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는데 힘쓰겠다.